관세청 | 보도자료 | 대체불가 대한민국

보도시점 배포즉시 배포 2026. 11. 19.(목) 15:30

이종욱 관세청장, 수출 1조 달러 시대 여는 날 인천공항 수출통관 현장 찾아

- 인천공항 화물터미널 방문, 항공물류 종사자와 세관직원 격려
- 연말 물량증가 대비, 반도체·전자상거래 등 수출 화물 신속통관 당부

이종욱 관세청장은 11월 19일(목) 인천공항 대한항공 제1화물터미널과 인천공항세관 수출입통관청사를 방문하여 항공 수출화물 통관현장을 점검하고, 수출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항공물류 종사자와 세관직원을 격려했다.

이번 방문은 우리나라 수출이 사상 첫 연간 1조 달러 시대를 여는 시점에 맞춰 수출화물이 세관통관을 거쳐 세계시장으로 나가는 현장 운영상황을 직접 살피기 위해 마련됐다.

인천공항은 반도체 등 고부가가치 첨단 품목과 화장품 등 전자상거래 수출물품이 세계시장으로 향하는 핵심 거점으로, 우리나라 항공 수출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.

이날 이 청장은 대한항공 제1화물터미널에서 수출화물이 터미널에 반입되어 항공기에 적재되기까지의 처리절차를 점검하고, 현장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.

이어 인천공항세관 수출입통관청사를 방문한 이 청장은 수출통관 업무에 힘쓰고 있는 세관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. 아울러 반도체 등 납기에 민감한 항공 수출화물이 지연 없이 출발할 수 있도록, 연말 물량 증가에 대비한 신속통관 지원체계를 빈틈없이 운영해 줄 것을 당부했다.

이 청장은 “수출 1조 달러는 보호무역 확산 등 녹록지 않은 여건에서도 우리 기업들과 수출 현장 관계자들이 함께 이뤄낸 값진 성과”라며, “이러한 성과가 내수기업·소상공인의 첫 수출과 수출중단기업의 재도전으로 이어져 더 많은 기업이 수출성장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”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관세청 통관기획과	책임자	과 장	양승혁 (042-481-7810)
		담당자	사무관	홍인영 (042-481-7856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대체불가 대한민국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